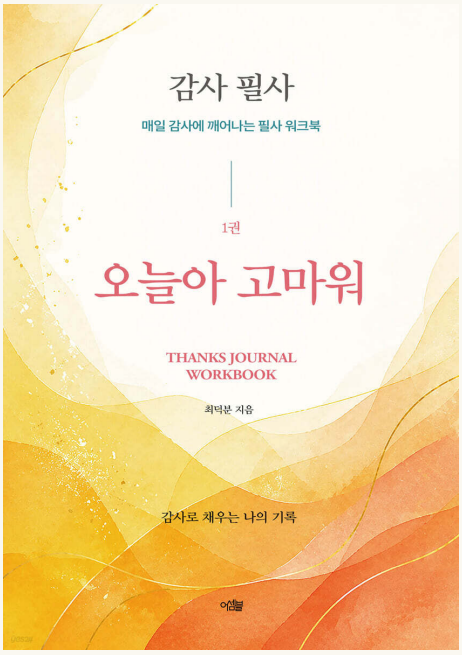
고마움을 적는 동안,
오늘을 보는 눈이 자랍니다.

최덕분 작가의『감사 필사, 오늘아 고마워』



작가 소개

최덕분 · 고마워 디자이너

감사일기를 꾸준히 써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고마움을 발견하고 기록하는 삶을 전하는 작가입니다. 고마워컴퍼니 대표이자 감사리더십 강사로서 강의와 코칭을 통해 감사의 실천을 돕고 있습니다.

감사 필사, 오늘아 고마워

매일 감사에 깨어나는 필사 워크북
감사 필사 시리즈 1권

최덕분 지음 | 어셈블
2026. 05. 08. 출간 · 112쪽

책에 담긴 이야기

8주 동안 40개의 주제로 감사 문장을 따라 쓰고, 오늘의 마음과 한 주를 돌아보는 워크북입니다.

자연과 사물, 나의 몸과 감정,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도움, 꿈과 나 자신까지. 일상에 놓여 있던 고마움을 차근차근 발견하도록 이끕니다.

존재의 숲이 소개하는 이유

존재의 숲은 관찰하고 기록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손으로 한 문장을 옮기며 나를 살게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일은 그 철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더 큰 성취를 기다리는 하루에, 이미 곁에 있는 고마움을 발견하는 시간을 권하고 싶습니다.

백미나의 시선

**“고마움을 기록하면,
평범했던 하루에도 밑줄이 생긴다.”**

당연하게 지나친 오늘을, 나를 살게 한 순간들로 다시 읽어봅니다.

어른의 시선이 자라면 아이의 세계가 자란다.

자료: YES24 도서·저자 소개 및 목차 | 소개·추천 글: 백미나

책 만나보기